

우리의 **국외 사역**

한국  **산위예교회**
최해성 목사

필리핀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GENESIS JOSUE LUIS	ESTEFANI NANCY ROBERTO YEFERSON	CAMILA JENNSY LIA ORIANA	EMELY GAEL OSCAR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콜롬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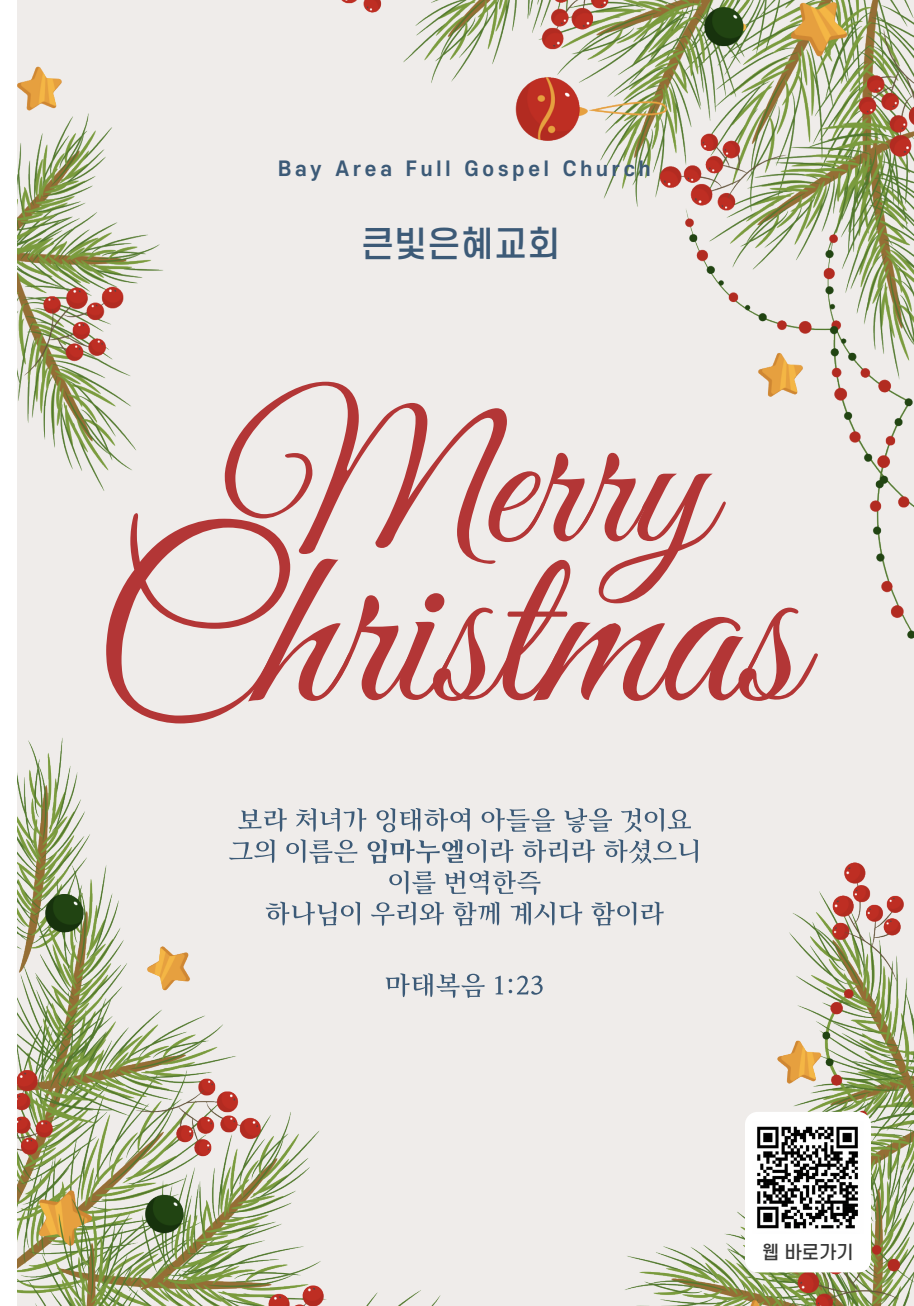
장소: 기도 처소

 Worship	영감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
 Enjoy	구원의 확신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삶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Increase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육체의 성장과 생각의 깊이와 영적 성숙이 점점 확장되는 교회
 Global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세계 선교로 마치는 교회
 Harvest	나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 나눠주고 꾸어주며 배풀어주는 교회
 Training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훈련되고 재생산되어 파송하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기도 처소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Merry Christmas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임목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육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Sunnyvale, CA

제 4호 49권		Vol. 4 No.49	12.7.2025	
여는 기도		김용현 전도사		
Opening Prayer		Samuel Kim		
경배와 찬양		다같이		
Worship and Praise		Together		
대표 기도		김찬양 성도		
Representative Prayer		Gloria Kim		
말	씀	사랑	담임 목사	
Sermon		요한복음 3장 16절	Senior Pastor	
합심 기도		다같이		
United Prayer		Together		
성	찬	보혈을 지나	다같이	
Communion			Together	
봉헌 및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Offering			Together	
광	고	담임 목사		
Announcements		Senior Pastor		
* 찬	양	삼중 축복	다같이	
Blessing Song			Together	
축	도	담임 목사		
Benediction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12/7	12/14	12/21	12/28	1/4
1부	-	-	-	-	이동은
2부	김찬양	김아론	민들레	김대환	김예원

1. 성찬 예배

이번 주는 성찬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배 안내

12월 한 달 동안 2부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3. 남성교구 주관 행사

일시: 12월 13일 (토) 오후 6시
장소: SC Christmas Tree Lane
(1991 Eucalyptus Ave, San Carlos, CA 94070)

4. 가정 예배지 안내

카이로스 21일 기도회로 인해 가정 예배지가 없습니다.

12월 생일

4일 이종록 전도사
16일 김시온 어린이
20일 김나엘 어린이
30일 이시훈 학생

12월 성찬위원

김용현, 김아론, 김대환

카이로스 21일 기도회

주제: 카이로스 하나님
일시: 12/1(월) - 12/21(주일)
월-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4시
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당, 교육관 및 유튜브



12.7.2025

‘톨레랑스’ 관용과 딜레마

톨레랑스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관용’ 또는 ‘용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 나와 다른 의견, 사상, 문화, 종교, 생활 방식 등을 틀리다고 비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참고 견딘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 다양성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전제 하에 다른 의견이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공존하려는 능동적인 윤리적 자세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관용의 한계는 타인의 관용을 해치지 않는 선입니다.

<톨레랑스의 장점>

톨레랑스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 꽃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자신과 다른 집단이나 사상을 존중하여 불필요한 충돌과 편 가르기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고유한 신념과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와 일치하기도 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정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이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톨레랑스의 한계 및 단점>

하지만 문제는 무관용적인 행위(예: 폭력, 범죄,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가 지나칠 경우, 사회의 대의적 가치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무비판적인 사회로 전락하여 적극적인 비판과 토론 없이 단순히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변질되어, 문제 해결이나 발전적인 논쟁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톨레랑스는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나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생각도 존중지만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절감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히는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다름을 배척하는 태도 대신,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것입니다.